역할분담으로 공동주제 연구

「한국의 中層文化」 펴낸 김선호, 김정한 교수 부부

세번째 공동저서 펴낸 김교수 내외

사회인류학적 접근으로 중층문화 규명

인생과 학문의 동반자로서 40여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교육학자 金善鎬(63·경희대), 金貞漢(62·이화여대)교수 부부가, 우리 시대의 문화양태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조망한 연구서 「韓國의 中層文化」(일조각)를 공저로 내놓았다.

김교수 부부가 공저를 내놓기는 「교육사회학」「대학인과 생활인」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 학부 출신교는 고려대 법학과와 이화여대 영문학과로 각각 다르지만, 결혼 後 美 시카고大와 조지 피바디大에서 함께 교육학을 전공한 뒤 지금까지 나란히 대학교단을 지켜와선지, 공동 연구저서라는 형태가 김교수부부에겐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은퇴가 가까워오면서 평소 교단 안팎에서 느껴왔던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떠받치는 것이 바로 중층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즈음 같은 가치관의 혼란시대를 지켜보며 과연 우리에게 중층문화가 있는가 하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과연 중층문화란 무엇이며, 그 형성과 발전에 있어 우리의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김교수 부부는 연구의도를 이렇게 설명하며, 그들의 책이 딱딱한 전문도서로서보다는 일반인들의 문화의식을 일깨우는 교양서로서 읽히기를 바랐다.

그래선지 이 책은 '산업사회의 성격' '사회변화와 문화양식' '문화지체와 중층문화' 등 딱딱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서술방식은 마치 이야기책을 읽듯 재미나다. 택시잡기에서부터 식탁예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일간신문의 시사적 칼럼 등을 연구논문이 요구하는 엄격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제까지 중층문화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논의돼왔지만 이들의 연구는 파워(Power)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먹고 생활하고 思考하는 보다 실제적인 측면을 제외시켜왔다는 것이 김교수 내외의 견해이다. 따라서 김교수 부부는 '직업·수입·학력 등 객관적인 지수보다는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사회인류학적 접근'을 이번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삼고 있다.

중층문화란 이런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부부가 사례별 연구를 통해 밝힌 중층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성실·근면·자제·봉사·노력 등 일반 교양인들이 갖추고 있는 덕목과 성취동기이다. 중층·하층문화가 반드시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으며, 하층문화를 반드시 폐습이고 탈피해야 할 절대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두 교수는 강조했다.

공동연구 위한 최적조건 갖춰

공동연구는 개인연구와 달리특별한 팀워크를 요구한다는 점에선 오히려 불편한(?) 연구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본격적인 연구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어를 짜고 아우트라인 긋는 일이 김교수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때이다.

김정한 교수는 김선호 교수가 '보스'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의견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함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존재한다. 처음으로 공저를 낼 때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쓴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로 고치느라 정신을 못차렸다는데, 이제는 이론적인 틀을 세우는 일은 김선호 교수가 맡고 사례연구나 아동교육 부분은 김정한 교수가 맡는 식으로 각자의 전공분야를 나누어 놓고 있다. 그러나 작업 중간중간 이견이 제기됐을 때는 충분한 토론으로 서로의 견해를 재조정한다고.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부부학자로서 누리는 장점은, 전공서적을 한권만 사서 두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금전적인 것에서부터 정보교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서로를 지나치게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정한 교수는 말하며 웃는다. 무작정 교육학자인 김교수를 찾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올 때는 누가 받아야 할 지 고민스러운 것도 불편함 중 하나라고.

8·15해방 직후 조선호텔 맞은편에 있던 ELI 영어학원을 드나들다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고, 6·25사변 중 부산에서 재회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다고 김교수 부부는 옛일을 회상한다. 전쟁 직후 미국으로 떠나 함께 유학생활을 했으니 확인해볼 도리는 없지만 부부유학생으로선 아마도 첫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는데, 80년대초 각자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교육대학원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첫번째 대학원장 부부가 탄생된 것도 김교수 부부가 세운 기록이다. 슬하의 1남1녀가 모두 결혼, 분가하는 바람에 이제는 단 두식구의 호젓한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한국의 중층문화」 뒤를 잇는 「한국의 하층문화」 연구작업으로 김교수 부부의 몸과 마음은 바쁘기만 하단다.

—오애리 기자

좋은 편집인을 만나십시오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편집디자인센타는 국내 출판·편집 산업과 엘리트 편집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 기관으로써 전문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이론·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과 출판·편집업계를 대상으로 취업추천, 출판분야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읍니다.

금번 본 센타에서는 정규반 수료생을 추천하고자 귀사에 일차 선별을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취업 구인 의뢰 급증!

※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하시면 그에 따른 소양인을 추천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엘리트 편집인 양성 목표!!

본 센타의 수료생을 채용해주신 출판사·잡지사 인사책임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노량진 전철역 맞은편
※ 취업인력 정보실 ☎ 814·3387

엘리트 편집인 양성 교육기관
광인 한국편집디자인센타
☎ 812-1715·6